



한국노총 전주·전북농협 등, '아침밥먹기 캠페인'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의장 박병철)는 11일 완산구청에서 전주시 공무원들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 박병철 의장과 완산구청 배희곤 구청장, 전주시공무원노조 김경오 위원장, 전북농협 김영일 총괄본부장, 이정환 은행본부장 등 5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박병철 의장은 활기찬 하루의 시작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600인분을 전주시청 직원들을 위해 나눠 주었다.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 박병철 의장은 "전북 쌀로 만든 가래떡 소비로 노동자의 건강도 챙기고 쌀값 하락으로 위태로운 전북의 쌀 산업을 지키는데 한국노총이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수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장학금 900만원 전달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최근 취약 가구 청소년 30명에게 3만원씩(총 9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교생활에 모방적이면서 미래 인재로의 자질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10개소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0명(각 30만원)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지난 10월 남원시가족센터가 주관한 행복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과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2013년 교육지원 및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12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YWCA 등, 향교동에 육아 지원용품 기부

남원시 향교동은 지난 10월, 남원 YWCA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준비용품(육아지원용품)을 기부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기부된 물품은 아기용 베개, 물티슈 등 육아에 필요한 기본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된 물품을 향교동 관내 취약계층 가구중 출산을 앞두거나 3개월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YWCA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내향교동장은 "이번 기부가 관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통장협의회, 성금 130만원 기탁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운자)는 지난 10월, 동 통장협의회에서 13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예년처럼 회람2025년 나눔캠페인 기간에 성금을 마련해 기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문영 통장협의 회장은 "이번 기탁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그린스마트스쿨, 삼레 미래를 그리다’

완주 삼레초,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기념행사 개최

완주 삼레초등학교(교장 백희철)는 11일 오전 그린스마트스쿨 준공을 기념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삼레 미래를 그리다'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개교 100주년을 맞는 삼레초등학교에 미래를 향한 친환경교육을 실현하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을 이루어 낸 그린스마트스쿨이 준공됨을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통해 3년의 공사기간 동안 어려움을 함께 한 교육가족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한다는 목표 아래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그린관에서 실시된 '또또장터'는 또쓰고 또쓰는 장터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실천하도록 했다. 삼레초 학생들은 '또또장터'의 준비와 운영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기초를 배우고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 '또또장터' 운영을 위해 500여점의 기부 물품이 모집되었고 삼레초 학부모회에서 무료 간식코너도 운영하여 학생들은 맛있는 간식과 함께 다양한 물품을 꼼꼼히 살펴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본교 난치병 환우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부 한마음관에서 실시된 음악회는 (사)미래인재교육진흥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완주교육지원청장과 완주 관내 교장단들 비롯하여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의 깜짝 손님인 정음서초등학교의 김성민 학생의 구성진 트롯과 노래에 행사장은 처음부터 환호에 휩싸이게 되었다. 본 식순에서는 바리톤 석상근과 소프라노 송나영이 다양한 오페라와 가곡 POP과 동요까지 다양한 곡을 선보였으며, 원광보전대학교 김석준 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져 더욱 풍성한 공연을 연출하였다. 삼레초 학생들은 공연 내내 핸드폰 플래시로 호응하는 등 공연 내내 카타란 박수와 합성으로 적극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출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완주교육지원청장과 완주 관내 교장단들 비롯하여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의 깜짝 손님인 정음서초등학교의 김성민 학생의 구성진 트롯과 노래에 행사장은 처음부터 환호에 휩싸이게 되었다. 본 식순에서는 바리톤 석상근과 소프라노 송나영이 다양한 오페라와 가곡 POP과 동요까지 다양한 곡을 선보였으며, 원광보전대학교 김석준 교수의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져 더욱 풍성한 공연을 연출하였다. 삼레초 학생들은 공연 내내 핸드폰 플래시로 호응하는 등 공연 내내 카타란 박수와 합성으로 적극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출연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등 모두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부

남원시는 11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원장 김유정)에서 직원들이 1년 동안 자발적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 228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남원지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소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작은 나눔이 모여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으며, 기부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유정 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지원 직원들의 꾸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 군에 성품 전달

11일 무주군(군수 황인홍)을 방문해 군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무주군청 직원들에게 손톱깎이 800점을 전해달라는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목받고 있다.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가 고향인 김 회장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작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가 고향인 김 회장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작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무성개발 등, 장학금-이웃돕기 성금 줄이어

사랑의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훌쩍 다가온 가운데, 무주군에 잇따르고 있는 온정의 손길에 추운겨울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무성개발(주)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철 대표는 지난 11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을 찾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무성개발은 무주군에 불우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과 후배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위해 기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와 자연특별시 무주사랑 실천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현철 대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구천동주우소를 운영하는 김준명 대표가 설천면사무소(면장 이지영)를 방문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 신덕면 주민자치위, 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신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백인임)가 지난 10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덕면 게이트볼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바자회는 지역 주민과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념식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압화 공예품 판매를 통한 성금 모금 및 기부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에서는 풍물, 난타,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지역 내 도아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실=전종영 기자



조만규 고창군의회 의장, 전북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고창군의회 조만규 의장이 11일 익산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은 2021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엔 조만규 의장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만규 의장은 2006년 제5대 고창군의회에 첫발을 디딘 4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제7대 전반기)과 산업건설위원장(제7대 후반기, 제9대 전반기) 등 고창군의회 주요 직을 맡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섰고,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래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고창군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고창군 농업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중선 익산시의회 의원, 산림환경대상 공로자 선정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이 11일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에서 주최한 '2024년 산림환경대상'에서 공로자로 선정됐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중선 의원은 기후환경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을 실천하며 녹색정당도시 조성을 위한 익산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텀블러 사용하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이러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심부건 완주군의회 의원, 전북 산림환경대상 수상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11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 의원이 그동안 완주군 및 전북자치도 지역의 산림 보호와 환경 보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은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주관하고 산림청 등이 후원하며, 산림 보호 및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심 의원은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의정 활동을 통해 산림 보호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해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 주민, '사랑나눔 쌀' 100포 기부

김제시 교월동 주민 5명(김학일 IS농기계 대표, 김종채, 이상우, 이창래, 정위수)은 11일 교월동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나눔 쌀' 10kg 100포를 기부하였다. 이번 '사랑나눔 쌀' 기부는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마음으로, 교월동 주민 5명이 한미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올해 수확해 도정한 쌀 100포를 모아주었으며, 이번 기부된 쌀은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사랑나눔 쌀' 행사를 준비한 교월동 주민 5명(김학일 IS농기계 대표, 김종채, 이상우, 이창래, 정위수)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